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어린이박물관의 교육내용 분석

- 국립제주박물관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오혜진

# 어린이박물관의 교육내용 분석

- 국립제주박물관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태 섭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오 혜 진

## 오혜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조태섭           인

심사위원           하일식           인

심사위원           하문식           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6월 일

# 차 례

표 목차 .....	ii
그림 목차 .....	iii
국문초록 .....	iv
<b>I. 머리말 .....</b>	<b>1</b>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방법 .....	3
<b>II. 어린이박물관 교육 현황 .....</b>	<b>6</b>
1. 박물관교육 .....	6
2. 박물관교육 현황 .....	7
<b>III. 국립제주박물관 사례 분석 .....</b>	<b>24</b>
1. 박물관교육 전 - 교육 의도 및 방법 .....	25
2. 박물관교육 - 교육 운영 .....	31
3. 박물관교육 후 - 설문지 분석 .....	38
<b>IV. 맺음말 .....</b>	<b>44</b>
참고문헌 .....	47
부록 .....	50
ABSTRACT .....	52

## 표 목차

표 1 국립중앙박물관의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9
표 2 국립중앙박물관 -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계획안	10
표 3 국립중앙박물관 -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수업지도안	11
표 4 국립중앙박물관 -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계획안	12
표 5 국립중앙박물관 -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수업지도안	13
표 6 국립제주박물관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14
표 7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전문 인력 현황	16
표 8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영역	17
표 9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대상	19
표 10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유형	20
표 11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23
표 12 특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24
표 13 역사학습에 대한 인식 설문 문항	26
표 14 제주 역사의 인지도 설문 문항	26
표 15 역사학습의 방법 설문 문항	27
표 16 박물관교육프로그램 교육 전 문항1	28

표 17 박물관교육프로그램 교육 전 문항2	28
표 18 박물관교육프로그램 교육 전 문항3	29
표 19 박물관교육프로그램 교육 전 문항4	29
표 20 역사교육방법의 선호도	30
표 21 국립제주박물관 -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31
표 22 국립제주박물관 -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세부계획	32
표 23 국립제주박물관 방문경험 및 목적 설문 문항	39
표 24 역사이해와 관련된 효용성 설문 문항	40
표 25 교육방법에 대한 흥미도 설문 문항	41
표 26 교육 운영의 개선할 점 설문 문항	42
표 27 교육 운영에 따른 의견 및 추후 선호 교육방법 설문 문항	42

## 그림 목차

그림 1 학생의 팝업 장수카드 작품1	37
그림 2 학생의 팝업 장수카드 작품2	37
그림 3 학생의 팝업 장수카드 작품3	37
그림 4 학생의 팝업 장수카드 작품4	37

## 국문초록

# 어린이박물관의 교육내용 분석

- 국립제주박물관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오혜진

이 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사례를 통해 제주의 어린이박물관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박물관 부재라는 한정된 조건의 제주에서 어린이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박물관 교육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특별전에 의한 교육이 많아 분기별 교육프로그램의 수가 유동적이고 전시 일정이 제한적이다. 둘째, 국립제주박물관은 교육대상을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저학년 수준에 맞는 용어선택과 활동 구성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의 유의미한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중요하다.

첫째, 학교연계 박물관교육은 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보다 교사에게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박물관 방문 전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의 지식습득 그 자체로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박물관은 ‘가르쳐야 하는 곳이 아니라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 문화유산의 장, 교육 활동의 무대인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주의 아이들은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제주의 할망, 하르방의 지혜를 배운다. 이처럼 제주의 아이들에게 박물관은 교육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국립제주박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주의 어린이박물관 교육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의 아이들이 앞으로 박물관에서 ‘제주의 삶을 경험한 할망, 하르방의 지혜와 체험의 기쁨’ 그리고 ‘실물을 보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어린이박물관 교육, 학교연계프로그램, 국립제주박물관, 초등학교 저학년

# I .머리말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주도는 자연환경과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사시대 이래 제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제주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고 제주 사람들의 삶은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제주만의 역사와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질문의 답은 교사의 역사 교육관으로 수렴되며 이에 대해 본인은 역사가 현실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어떤 역사학자는 과거에 대한 유추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sup>1)</sup> 그러나, 인간 행위에는 유사성이 있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인간과 사건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은 다시 나타날 수 있기에 과거 사건의 유추를 통한 현재 문제의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sup>2)</sup> 이처럼 역사는 학생들이 마주한 실생활 속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규 교육과정 내 역사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sup>3)</sup>학생들에게도 역사학습은 유의미하다.

제주의 아이들이 만나는 생활 속 문제들은 제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해결방법 또한 제주만의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제

---

1) William McNeill, Michael Kammen, Craig Gordon, "Why Study History? Three Historians Respond", *Paul Gagnon and The Bradley Commission on History in School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9), 115쪽

2) 윤세철, 최상훈, 2003, 「역사의 유용성과 역사교육목표」, 『역사교육연구회』 87, 157쪽

3) 최종호, 2006, 「어린이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박물관학보』, 286쪽,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경우, 초등 저학년(7-9세: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4-6학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 역사를 통해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는 지역사<sup>4)</sup>를 통해 학습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사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한다.<sup>5)</sup> 김봉석<sup>6)</sup>은 지역사 학습이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소재를 안겨주는 동시에 시간적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출발하는 역사 탐구를 가능하게 해주며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안목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하였다. 황현정<sup>7)</sup>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 자신들보다 한 세대 앞에 있었던 삶을 공부하는 것은 현재 학생의 삶의 맥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학습 흥미를 유발하기에 지역사가 좋은 자료라고 하였다. 이처럼 지역사는 지역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쉽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율성, 효과성, 실용성이 높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지역사를 통해 역사를 접한다면 지역의 사물과 현상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화된 역사를 보고 사실로서 실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현재 역사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의 과거와 장소의 역사성, 공간의 역사성 활용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의 활동 가치와 의미를 공감할 수 있게 된다.<sup>8)</sup> 그렇기에 지역사는 저학년의 역사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다.

이러한 제주의 지역사를 다양한 자료와 실물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역

4) 유승광, 2006,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구성 방안」, 『역사와 담론』 44, 300쪽. 지역사는 생활의 장으로서의 역사를 말하고 지역사 학습은 학습자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역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역사교육의 목표 성취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기르는 학습이다.

5) 허영훈,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한 초등학교 지역사 학습 교재 개발 연구」, 『사회과교육』 56, 76쪽

6) 김봉석, 2015, 「융복합 시대의 지리적 관점을 조망하는 역사교육의 모색」, 『사회과교육』 54, 91-108쪽

7) 황현정, 2015, 「지역사 수업의 실행과 정체성 교육」,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147-171쪽

8) 석병배, 2012, 「초등학교에서 지역사 자료로 역사하기: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12쪽

사학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학습 대상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추상으로 존재하는 과거 사실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sup>9)</sup>

저학년의 역사학습을 가능하게 하는데 박물관교육을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물관은 학생들에게 실물자료를 제시하고 능동적으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또한, 교육적 기능으로서 박물관을 바라볼 때 관람자는 단순히 유물과 전시를 보는 수동적 주체에서 역사를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주체로 인식된다.<sup>10)</sup>

제주의 학생들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실물자료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 문화기반시설의 확대로 과거에 비해 실물자료의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수치는 현저히 낮다. 학생들이 실물자료를 접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박물관마저도 다양한 분야의 박물관 부재와 근접성으로 인해 쉽지 않다.

이 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사례를 통해 제주의 어린이박물관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박물관 부재라는 한정된 조건의 제주에서 어린이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박물관교육의 정의와 의의를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정리하고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실시되는 어린이박물관 교육의 분석 연구를 위해 비교박물관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을 선정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과 국

9) 오인택, 2003, 「역사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박물관 학습 방안 - 초등학생의 복천박물관 견학을 중심으로 -」, 『지역과 역사』 13, 115쪽

10) 김민정, 2012,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역사학습」, 『역사교육연구』, 41쪽

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었던 어린이박물관 교육 중 본 연구자가 비교 분석한 교육은 국립제주박물관의 특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인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와 내용 영역 측면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국립중앙박물관 두 개의 프로그램이다.

2019년 5월 14일 초등 1, 2학년 41명 학생들은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 반짝반짝 수노인도 장수카드 만들기」 어린이박물관 교육에 참여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기획한 다양한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중 특별전과 연계된 어린이박물관 교육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교 박물관을 찾다’의 경우 학생들이 박물관을 활용할 때의 방법을 익히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서 국립제주박물관의 고유한 프로그램이기보다 비교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형태였다. 그렇기에 국립제주박물관만의 특징을 나타내기가 어렵고 특별전 관련 내용은 제주만의 특징을 담아내기에 지역사 활용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특별전 관련 세부프로그램 선택은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팝업 장수카드 만들기 활동이 퀴즈, 백일장 활동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참여한 어린이박물관 교육의 경우 연구자의 관찰과 녹취록, 학생들의 사후 설문지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경험하고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실제 학생들이 체험한 국립제주박물관 교육은 사전에 교육대상이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기획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였다.

II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박물관교육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기획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교육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이 중 교육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하고 역사와 과학의 결합이라는 그 성격이 유사한 두 프로그램을 선택해 비교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던 어린이 박물관 교육을 박물관교육 전, 박물관교육 운영, 박물관교육 후로 나누어 살

펴볼 것이다. 박물관교육 전에는 사전 설문지 분석과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및 교육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박물관교육 운영에서는 학생들의 실제 체험 활동 부분을 서술하고 박물관교육 후에는 박물관교육 체험 후 학생들이 작성한 사후 설문지를 분석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운영과 설문지 분석을 바탕으로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대상 박물관교육의 현황을 진단한 후 박물관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프로그램 구성과 교사 측면으로 나누어 제언하고자 한다.

이 글에 활용된 교육내용과 자료 중의 일부분은 국립제주박물관 측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본문 내용 중의 박물관프로그램 현황 및 수업지도안, 세부계획서, 녹취록 등은 국립제주박물관 측의 자료를 활용한 것임을 명시한다.

## Ⅱ. 어린이박물관 교육 현황

### 1. 박물관교육

박물관교육은 ‘박물관’ 과 ‘교육’ 이 합쳐진 용어이다. ‘박물관’ 이라는 기관의 특성과 ‘교육’ 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만나 11)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12)

박물관의 소장품들은 주로 앞선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에 역사교육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예술품들은 미술, 사회 교과와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13) 이처럼 박물관교육은 다양한 과목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박물관교육은 박물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문화 활동을 의미하며, 박물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육 현상을 말한다.14) 학습자는 내가 찾아간 박물관에서 스스로 선택한 학습경험의 주체가 되어 문화를 체험하며,15) 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박물관의 소장품, 연구, 전시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공되는16) 박물관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박물관교육은 박물관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박물관의 장소적, 기능적, 내용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대상 관람객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육철학과

11) 김상옥, 2009, 「박물관을 활용한 중등 역사교육 방안 연구 :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쪽

12) 임성국, 2008, 「박물관교육프로그램과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쪽

13) 송현정, 2010, 「문화재를 활용한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연구 - 서울역사박물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80쪽

14) 김인희, 2008, 『도시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경인문화사, 14쪽

15) 박은성, 2012, 「문화유적 관련 박물관교육프로그램 분석 연구 : 실학박물관 ‘어린이 실학교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쪽

16) 백령, 2005,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교육』, 서울:예경, 18쪽

과정을 개발해서 실행하는데 특징이 있다.<sup>17)</sup> 학교와는 달리 일정한 나이와 계층적 제한 없이 비교적 폭넓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관람객의 요구와 능력, 관심을 반영할 수 있다.<sup>18)</sup>

둘째, 박물관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간접적인 경험의 축적으로 자아발견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sup>19)</sup> 문화의식의 향상에 따라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박물관에 문화시설,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이 요구된다.<sup>20)</sup>

셋째, 박물관교육은 실물을 중심으로 한 시각적 매체를 사용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형태를 지향한다. 관람자들은 실물자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스스로 탐색하고 발견해 나간다. 박물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를 통한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전시되어있는 소장품과 직접 교류하는 방법이므로 스스로 체험을 통해 자신의 학습 의욕에 따라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sup>21)</sup>

## 2. 박물관교육 현황

국립제주박물관의 비교박물관 선정에 있어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 실시하는 곳을 기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선정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유아에서 성인까지 교육대상이 폭넓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는 대상을 초등학생

17) 이보아, 2002, 『박물관학개론』, 김영사, 218쪽

18) 임성국, 2008, 앞의 논문, 13쪽

19) 이보아, 2002, 앞의 책, 216쪽

20) 송현정, 2010, 앞의 논문, 81쪽

21) 정미선, 2004, 「초등학교 4,5,6학년을 위한 박물관에서의 학과연계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쪽

으로 한정하였고,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 시기에 있어 2018년도 하반기에 진행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국내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는 각 박물관의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정보공개요청에 따른 정보 수집, 그리고 연구자의 소속 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실제 체험한 프로그램 참관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실제 참관한 프로그램의 경우 박물관교육 전 사전 설문지와 세부프로그램 계획서, 학예사의 전시 안내 및 박물관교육 후 사후 설문지를 통해 자세한 언급이 가능하나 실제 참여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경우 기본적인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1)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교육프로그램 현황<sup>22)</sup>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성인, 청소년, 가족, 희망계층, 외국인, 전문 인력 등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박물관이라는 공간과 소장품을 매개로 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전시 감상 중심으로 기획한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와 ‘교과서는 살아 있다’는 실물 중심의 오감 교육을 제공하고 전시품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급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벗어나 상설전시실의 소장품과 연계하여 학년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가족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조부모까지 가족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실의 전시품으로 가족이 하나 되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며, 상설전시 또는 기획전시와 연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22) 국립중앙박물관, 2019, 『국립중앙박물관교육프로그램 자료집』 참고

2018년에는 고려건국 1100주년을 맞아 ‘내가 만난 고려 보물’ 로 새롭게 구성하여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였으며 감정과 기억의 공유를 통해 감성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학예사를 비롯하여 교사, 공무원, 콘텐츠 개발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 대상 프로그램 또한 대상이 초등 교사까지 확대되고 횟수도 증가하여 박물관교육의 중요한 매개로서 교사의 역할을 더욱 부각할 수 있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기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되었던 초등학생 대상 박물관교육프로그램 현황이다.(표1)

<표1> 국립중앙박물관의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sup>23)</sup>

(2018년 하반기 기준)

연번	프로그램명
1	전시품으로 보는 역사 한 장면
2	박물관 전문직 체험 교실
3	국립중앙박물관 보물을 찾아라!
4	교과서는 살아 있다
5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
6	<b>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 어떻게 알았을까?</b>
7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 고려청자 속으로 풍덩
8	신안 해저선의 비밀
9	<b>우리는 문화재 지킴이</b>
10	선비의 방을 찾아가요
11	나는야 상감청자 장인
12	나는야 금속활자 장인
13	여름밤, 박물관에서
14	우리 가족 석탑 나들이

2018년 하반기(7월-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 초등학교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총 14개이며 이 중 학교연계프로그램은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 어떻게 알았을까?」 ‘고려청자 속으로 풍덩!’,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이다. 세 개의 교육프로그램 중 역사와 과학의 통합적 성격인 국립제주박물관의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프로그램과 유사한 어린이박물관

23) 국립중앙박물관, 2019, 위의 책 참고

교육은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 어떻게 알았을까?」와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이다. 각각의 프로그램 계획안과 수업지도안을 살펴보고 장단점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문화재의 비밀을 아는 프로그램이다. 계획안(표2)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는 달리 학생들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측에서 각 학교나 축제장을 찾아다니며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새로운 교육 및 체험활동의 한 방법이며 각 학교나 축제전시장과 연계되어 실물자료의 접근성을 높여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표2> 국립중앙박물관 -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계획안<sup>24)</sup>

<b>교육 제목</b>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 어떻게 알았을까?
<b>교육대상</b>	초. 중학교/ 소속박물관/ 지역문화 축제장(19,065명)
<b>교육 장소 및 일정</b>	초. 중등학교 현장, 지역문화 축제장 04.09-11.24/38회/10:00-16:00
<b>교육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박물관교육 나눔 확대</li> <li>- 자유학기제 연계 학생들의 직업 및 문화 체험활동 기회 제공</li> <li>- 지역문화 축제 내용의 다양성 제공 및 박물관 역할 확대</li> </ul>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소주제별 전시품(42점) 감상</li> <li>- 전시 보조 체험물 및 영상물(5종)</li> <li>- 연계 체험프로그램(2종)</li> <li>- 자유학기제 연계 '박물관 전문직 직업' 소개 영상물 시청</li> </ul>

또한 수업지도안(표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각의 주제별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미리 정해놓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대략 2시간 40분 정도이다. 아마도 오전이나 오후의 시간 구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24) 국립중앙박물관의 정보요청공개에 따른 자료 참고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두 파트로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 집중시간이 짧은 어린이들에게는 오히려 수업의 산만함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내용의 전달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목표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내용을 선별하여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습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3> 국립중앙박물관 -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수업지도안<sup>25)</sup>

구분	시간	내용
프로그램 안내	20분	- 운영진 인사, 프로그램 안내 - 국립중앙박물관 소개 동영상 상영
전시품 관람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40분	- 3분야 소주제별 전시품(42점) 및 영상물(5종) 관람 - 1장 : 불과 흙의 과학, 자기(16점) - 2장 : 과학으로 밝힌 초상화의 진실(4점) - 3장 : 과학으로 풀어보는 금속 공예품(22점)
체험프로그램 - 문화재모형 목걸이 만들기	40분	- 문화재 모양 틀과 인조 진흙을 이용, 문화재모형 목걸이, 팔찌 등을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 상승 - 모양 틀(10종) : 농경문 청동기, 문고리 사자문, 팔주령 등
체험프로그램 - 신라 금귀걸이에 문양 만들기	40분	- 신라 금귀걸이에 담긴 문양을 누금기법을 차용한 방법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금속공예 제작 기법 이해 - 누금기법 참고 영상 시청
동영상 시청(선택) -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16분	- 박물관 학예 연구직의 업무 및 인터뷰 동영상 시청으로 미래의 직업을 탐색해보는 기회 마련

마지막으로 도입부에서 박물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활동 마무리를 이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학예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교육대상인 어린이들로 하여금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우리는 문화재 지킴이」에

25) 국립중앙박물관의 정보요청공개에 따른 자료 참고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아래의 계획안(표4)을 참고하면 이 주제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박물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앞서 살펴본 프로그램과는 다른 점이다.

총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주된 특징은 다양한 유물들을 실견하고 실제로 만져보면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특히 별도 제작한 교육키트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4> 국립중앙박물관 -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계획안<sup>26)</sup>

<b>교육 제목</b>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b>교육대상</b>	초등4-6학년 학급단체/ 회당 30명 내외
<b>교육 장소 및 일정</b>	공간 on, 생각쑥쑥교실, 상설전시실 등 2018. 9-11월 2,4주 금요일 10:10-11:40
<b>교육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li>- 다양한 실물자료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 및 역사학습 효과 증진</li> <li>-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키트 운영의 활성화</li> </ul>
<b>교육내용</b>	석조문화재와 금속문화재를 중심으로 복원 과정과 방법 등 문화재 보존과학에 대해 알아보고 박물관에서 지켜야 할 관람예절 및 생활 속에서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

26) 국립중앙박물관의 정보요청공개에 따른 자료 참고

<표5> 국립중앙박물관 -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수업지도안<sup>27)</sup>

학습 흐름	단계	시간	교수·학습 활동	장소
도입	동기유발	5분	▷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소개 ▶ 박물관 관람예절 교육 및 안전교육 ▷ 문화재 훼손에 대해 생각해보기 ▶ 친구들이 생각하는 문화재는 무엇인가요? ▶ 문화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생각 쑥쑥 교실
전개	시청각 교육	20분	▷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 생각해보기 ▶ 문화재의 정의 ▶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의 재질 ▶ 문화재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	
전개	시청각 교육		▷ 오늘의 문화재는? ▶ 경천사십층석탑 이야기 ▶ 석조문화재, 금속문화재 손상 원인 ▶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	생각 쑥쑥 교실
	전시실 활동1	15분	▷ ‘경천사십층석탑’ 감상 활동 ▶ 경천사십층석탑 특징 관찰하기	전시실
	전시실 활동2	15분	▷ ‘금속 공예실’ 감상 활동 ▶ 금속문화재의 특징 알아보기 ▶ 전시장 숨겨진 안전장치 찾아보기	
	교실 활동	30분	▷ 문화재 보존 기록카드 작성 ▷ 습도조절 해보기	생각 쑥쑥 교실
정리	마무리	5분	▷ 생활 속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사	공간온

수업지도안(표5)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 제작한 동영상 시청과 전시실로 이동하여 유물을 감상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학생들의 박물관교육에 대한 동기를 일으키고 박물관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한 곳에 앉아서 하는 정적인 수업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적용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

27) 국립중앙박물관의 정보요청공개에 따른 자료 참고

## 2) 국립제주박물관의 박물관교육프로그램 현황<sup>28)</sup>

2001년에 개관한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유물을 수집·보존하고 체계적인 전시와 학술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교육 및 문화 공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sup>29)</sup>

최근에는 노인성의 개념과 역사적 의미, 수노인도를 바탕으로 「제주를 비추는 장수의 별, 노인성」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기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운영되었던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표6)

<표6> 국립제주박물관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sup>30)</sup>

(2018년 하반기 기준)

연번	프로그램명	교육내용(주제)
1	온고지신	- 제주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신화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기 - 의녀 김만덕 탐구를 통한 그림자인형극 개발
2	탐라 사람들의 생활 - 우물에 빠진 돼지, 토우	- 특별전 감상 및 토우 만들기 체험
3	할망, 하르방 지혜의 샘	- 지역의 어르신을 모시고 제주문화 이야기 듣기
4	우리 옷에 숨은 비밀	- 직물과 관련된 문화재 탐색 - 미니 직조 틀을 활용한 직물 짜기 체험
5	학교, 박물관을 찾다	- 박물관의 다양한 전문 분야 탐색 - 문화재 탐색
6	내가 만드는 그림자극, 삼성 신화	- 탐라 특별전 문화재 감상 및 제주의 건국신화 삼성 신화 그림자극 체험
7	탐라, 바다를 통한 이웃 나라와의 교류	- 탐라 특별전 문화재 감상과 이해 - 물물교환 시장으로 탐라의 해상 교역 이해
8	특명, 천년왕국의 비밀을 파헤쳐라!	- 탐라 특별전 연계를 통한 전시 감상 및 반별 퀴즈

위의 표(표6)에서 살펴보면 국립제주박물관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28)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http://jeju.museum.go.kr/>) 참고

29) 위 홈페이지 참고

30) 위 홈페이지 참고

돕기 위한 성인 교육프로그램인 ‘제주, 인문학을 만나다’ , 실제 제주도에서 생활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들을 수 있는 ‘할망, 하르방 지혜의 샘’ 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2018년 하반기(7월-12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기획한 초등학교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총 8개이며 이 중 학교연계프로그램은 ‘우리 옷에 숨은 비밀’ , ‘학교 박물관을 찾다’ , ‘내가 만드는 그림자극, 삼성 신화’ , ‘탐라, 바다를 통한 이웃 나라와의 교류’ , ‘특명, 천년왕국의 비밀을 파헤쳐라’ 이다.

### 3)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비교 분석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기획한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서술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토대로 전문 인력 현황, 주제에 따른 내용 영역, 교육대상, 교육유형,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1)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전문 인력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을 연구하는 전문 부서와 전문 인력은 박물관교육 이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인적 자원이다.<sup>31)</sup> 즉, 박물관교육 전문 인력은 소장품과 대중의 의사소통을 돕는 매개자, 촉매자 역할을 담당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을 말한다.<sup>32)</sup>

31) 염윤영, 2012,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쪽

32) 황지영, 2005, 「박물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중앙대학

흔히, 교사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논할 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 는 말을 한다. 이를 박물관교육에 적용해 본다면 박물관교육을 기획하는 전문 인력에 따라 박물관교육의 질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박물관은 교육담당 부서와 미술교육전문가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박물관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박물관 관장이나 학예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은 거친 후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박물관프로그램 진행은 주로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고 있다.<sup>33)</sup> 박물관교육 인력에는 교육을 담당하고 운영·관리하는 교육프로그램 관리자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자가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실행자로는 박물관교육을 진행하는 박물관교사(museum teacher)와 전시설명을 담당하는 도슨트가 포함된다.

<표7>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전문 인력 현황

	프로그램명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교육프로그램 진행자
국립중앙 박물관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교육담당 부서	교육담당자 외부 전문교육 강사 현지 지원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교육담당 부서	외부 전문교육 강사
국립제주 박물관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교육담당 부서	교육담당자 외부 전문교육 강사 (실기 미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전문 인력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위 표(표7)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두 프로그램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자는 교육담당 부서로 동일하나 교육프로그램 진행자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교육담당자와 외부 전문교육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국립중앙박물관의 「과학

교 석사학위논문, 19쪽

33) 염윤영, 2012, 앞의 논문, 65쪽

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은 이와 더불어 현지의 지원이 있었다. 이는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과 달리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은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연계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축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박물관교육이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 (2)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에 따른 내용 영역 비교

박물관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의 선정은 박물관교육의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대상의 연령과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주제와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sup>34)</sup> 역사와 과학의 통합적 성격이라는 선행조건으로 세 개의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기에 세 프로그램 모두 역사와 과학은 내용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의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은 운영되는 교육주제와 내용 영역에 있어 미술 영역별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는데<sup>35)</sup>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의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는 미술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 개의 프로그램은 역사, 과학, 미술 등 여러 분야와 통합적인 학습교육을 시도해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프로그램별 주제와 내용 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8)

34) 염윤영, 2012, 위의 논문, 71쪽

35) 봉다현, 2015, 「박물관 및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비교연구 -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쪽

<표8>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에 따른 내용 영역

	프로그램명	주제	내용 영역
국립 중앙 박물관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① 전시품 관람 :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어떻게 알았을까? ② 체험프로그램 - 문화재모형 목걸이 만들기 ③ 체험프로그램 : 신라 귀걸이 문양 만들기 ④ 동영상 시청 :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역사 과학 미술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① 시청각 교육 : ‘경천사십층석탑 알기’ ‘문화재의 손상 원인과 보호하는 방법 알기’ ② 전시실 활동 ‘경천사십층석탑 특징 관찰하기’ ‘금속 공예실 감상하기’ ③ 활동지 : ‘문화재 보존 기록카드 작성’	역사 과학
국립제주 박물관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① 특별전 전시 감상과 이해 : 활동지 ②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께 보내는 장수카드	역사 과학 미술

### (3)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대상 비교

백령<sup>36)</sup>은 박물관교육의 3요소로 전시, 대상연구, 동기부여를 정의하였다. 박물관에서의 모든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객의 참여라 하였고 현재 많은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이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대상 연구<sup>37)</sup>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대상의 연구는 전시와 관람객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획의 필수요건이며 무엇을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로 하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상에게 다가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였다.<sup>38)</sup>

36) 백령, 2002, 「박물관교육의 이론과 유형 사례」, 『박물관학보』, 144쪽

37) 백령, 2002, 위의 논문, 146쪽, 대상연구란 누구를 위한 전시이며 활동인지,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은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박물관을 찾는 이유와 누구와 함께 박물관에 오며 이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는지, 이들의 박물관 경험은 어떤 것인지와 같은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말한다.

38) 백령, 2002, 위의 논문, 147쪽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프로그램별 교육대상을 살펴보면(표9) 세 개의 프로그램 모두 교육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동일하나 세부적으로 교육대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의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대상을 지정하였다. 학교연계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박물관은 그 특징에 맞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지역문화 축제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육대상이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으로 확장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국립제주박물관의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의 경우 교육대상을 초등학생 단체로 선정할 부분은 동일하나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4-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된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프로그램보다 포괄적으로 교육대상이 선정되었다.

<표9>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대상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국립중앙 박물관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초등학생/ 중학생/ 소속박물관/ 지역문화 축제장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초등학교 4-6학년 학급단체 30명 내외
국립제주 박물관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초등학교 단체 40명 내외

#### (4)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유형 비교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은 연령, 집단, 형식, 시간, 목표로 구분되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령별로 일반 개인, 전문가, 가족, 학교, 지역사회 그룹, 장애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형식적 분류로는 이론 중심, 감상, 실기 중심,

감상과 실기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간의 분류에 따라서는 다수 방문프로그램(multiple-visit)과 일회 방문프로그램(one-time visit)으로 구분할 수 있고 목표별로 교양 교육의 형태인 일반인 교육과 심화 과정에 의미를 두는 전문가 교육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지역의 자원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을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sup>39)</sup>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교육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0)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 일정 및 시간 면에서 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횟수는 일회적이긴 하나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운영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의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은 나머지 프로그램과는 달리 학교연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연계가 이루어져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이나 학생들에게 박물관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형식을 비교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의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는 전시품의 감상과 실기(체험활동)가 병행되어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프로그램은 전시품 감상이 주를 이루었다.

---

39) 황지영, 2005, 앞의 논문, 13-14쪽

<표10>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유형

	프로그램명	교육유형	관내/관외	시간	형식
국립 중앙 박물관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학교연계 지역사회연계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일회 방문 /비정기적	감상과 실기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학교연계	박물관 내 교육 참여	일회 방문 /비정기적	감상
국립 제주 박물관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학교연계	박물관 내 교육 참여	일회 방문 /비정기적	감상과 실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박물관교육은 감상과 함께 체험활동이 병행되는데 박물관교육프로그램 내 체험활동은 초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박물관교육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목적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활동이라 판단된다. 감상 위주의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프로그램의 경우 4-6학년으로 교육대상을 한정하였고 교수학습 자료로 쓰인 경천사십층석탑과 금속문화재는 문화재 보존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이것에 대한 이해를 교육의 주목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기에 감상을 중점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 (5)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비교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은 유물의 관찰, 역사적 주제 탐구의 기회 제공, 전시실과 전시유물에 대한 개인적 의미 부여와 표현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up>40)</sup> 김민정<sup>41)</sup>은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을 현행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목표와 학습 활동에 따라 개별 유물의 관찰과 정보의 습득, 유물과 전시 주제에 대한 탐구, 전시된 유물에 대한 의미 구성과 표현 등의 목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진행되

40) 김민정, 2012, 앞의 논문, 53쪽

41) 김민정, 2012, 위의 논문, 53-63쪽

었던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목표와 학습 활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11)

국립중앙박물관의 「과학으로 밝은 문화재의 비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목표와 학습 활동은 개별 유물관찰과 정보의 습득이다. 두 프로그램은 유물 전시 및 다양한 설명 도구를 동원하여 유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이나 활동지를 통해 관람자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유물의 활동을 파악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sup>42)</sup> 활동 전반에는 학예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설명식 강의를 통해 유물에 대한 지식전달이 주를 이루고 전시품의 설명이 끝난 후 관람자에게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설명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이려 하였다.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의 제작과정과 안료, 초상화에 쓰이는 안료, 금속공예품의 제작기법 등을 전시품 감상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본 후 문화재모형 틀과 진흙을 이용한 문화재 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신라의 금귀걸이를 누금기법을 차용하여 만들어보았다. 교육 활동에 있어 교수학습 자료는 복제품이긴 하나 상설전시에 있는 전시품을 활용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의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예사의 설명을 통해 노인성의 의미를 알아보고 활동지와 함께 노인성 특별전 관람 및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노인성이 표시된 지도와 조선 시대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를 감상하였다. 전문가의 설명이 끝난 후에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보내는 장수카드를 만드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였다. 교수학습 자료는 「제주를 비추는 장수의 별, 노인성」의 특별전을 활용하였다.

두 프로그램과는 달리 국립중앙박물관의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의 목표와 학습 활동은 유물과 전시 주제에 대한 탐구이다. 유물의 관찰과 관련된 정보의 습득은 선행조직자 즉,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전문 인력의 효과적 전달이 관건이 아니라 관람하는 학생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연구

42) 김민정, 2012, 위의 논문, 53쪽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관람했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sup>43)</sup> 국립중앙박물관의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프로그램은 석조문화재와 금속문화재의 복원 과정 및 방법 등 문화재 보존과학에 대해 알아보고 보존 과학자가 하는 일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어<sup>44)</sup> 학예사, 문화재 보존 과학자 등 박물관 종사자들이 하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물관 유물과 전시 연구 방법의 이해는 박물관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시된 유물에 결부된 지식과 전시실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며,<sup>45)</sup>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교수학습 자료로 상설전시와 연계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11>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프로그램명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국립중앙 박물관	과학으로 밝힌 문화재의 비밀	개별 유물관찰과 정보의 습득 상설전시와 연계(복제품)
	우리는 문화재 지킴이	유물과 전시 주제에 대한 탐구 상설전시와 연계
국립제주 박물관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개별 유물관찰과 정보의 습득 특별전시와 연계

43) 김민정, 2012, 위의 논문, 57쪽

44) 국립중앙박물관, 2019, 앞의 책 참고

45) 김민정, 2012, 앞의 논문, 57쪽

### Ⅲ. 국립제주박물관 사례 분석

####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연계프로그램은 「학교 박물관을 찾다」를 제외하고는 박물관에서 미리 정한 교육목표에 따라 선정된 문화재를 감상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가상체험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에 활용된 문화재의 경우 상설 전시장에서 선택된 것과 더불어 일정 기간만 전시가 진행되는 특별전<sup>46)</sup>에서 선택된 것을 활용하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학교연계프로그램 시 선택되는 전시유형이 특별전의 비율이 비교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해 높다.<sup>47)</sup>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를 비추는 장수의 별, 노인성」 특별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교육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12)

<표12> 특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sup>48)</sup>

구분	교육 프로그램명	대상/인원
관람객	큐레이터에게 듣는 노인성 이야기	관람객
청소년	도전! 유튜버& 큐레이터, 꿈나무 도슨트	중·고등학생 9명
	선생님 박물관 초청	교사 40명
학교 연계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초·중등 학년 단체 200명 내외 초등 학급단체 40명 내외
	청소년 박물관에서 꿈을 만나다	중등 학년 단체 200명 내외
성인	박물관에서 열리는 경수연	65세 이상 어르신 20명 내외
	제주에서 관측되는 장수의 별 노인성	성인 100명 내외

46) 김원길, 김주연, 2018, 「박물관 기획전시 관람객의 관람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51, 167쪽, 특별전은 상설전시로서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나 주제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기획전, 테마전, 특별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47) 2018년 하반기 프로그램 기준(초등학생 대상) 특별전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14개 프로그램 중 3개(21.43%)가 특별전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었고,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 8개 프로그램 중 4개(50%)가 특별전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해 특별전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다.

## 1. 박물관교육 전 - 교육 의도 및 방법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프로그램 참관 예정인 1학년(20명) 학생들과 2학년(21명) 학생, 총 41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교육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① 역사학습의 흥미 여부 및 제주 역사 인지도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 여부와 지역사인 제주 역사의 인지도를 파악할 것이다. 설문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과 박물관교육 전 사전학습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 ② 역사학습 방법 및 박물관교육(본 학습) 전 선수학습수준

평소 저학년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역사를 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본 학습인 박물관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선수학습 수준을 진단할 것이다.

### ③ 역사교육방법 선호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역사교육방법을 파악한 후 교수학습방법으로 박물관교육을 선택할 시 본 학습에서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습의 효율성 측면을 예상할 것이다.

다음은 2019년 4월 1일에 실시된 특별전 관련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참여 전 설문지 7개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과 그에 따른 분석이다.

---

48)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http://jeju.museum.go.kr/>)와 정보공개요청에 따른 자료를 재구성

<표13> 역사학습에 대한 인식 설문 문항

1. 여러분은 평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나요? (N=41)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역사를 좋아하고 잘 알고 있다.	4	2	6(14.6%)
② 역사를 좋아하나 잘 알지 못한다.	14	14	28(68.3%)
③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2	5	7(17.1%)

<표14> 제주 역사의 인지도 설문 문항

2. 여러분은 제주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N=41)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잘 알고 있다.	1	0	1(2.4%)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	18	20(48.8%)
③ 잘 알지 못한다.	17	3	20(48.8%)

역사학습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첫 번째 문항에 대해 설문응답자 82.9%(34명)가 역사에 대해 흥미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설문응답자의 과반수를 넘은 수치다. 아동의 역사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흥미도가 낮은 것과(조계훈 2010:19)<sup>49)</sup>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에 대해 흥미가 높고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응답자는 14.6%(6명)이었고 역사에 대해 흥미는 높으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한 설문응답자는 68.3%(28명)이었다. 반면에,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설문응답자는 17.1%(7명)이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역사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즉,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습에 있어 감각 의존적이며 구체적 조작물이 요구된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직접적인 접촉과 행동을 통해 더 빠르게 인식하게 되며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sup>50)</sup>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직접

49) 김경수, 2015, 「인물학습을 활용한 역사학습 방안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4쪽 재인용

50) 박언진, 2015, 「주제중심통합학습을 활용한 저학년 역사교육의 가능성 모색」, 한국교원대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렵다고 여기는 학생들이므로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참여 시 저학년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제주 역사의 인지도를 알아보는 두 번째 문항에는 설문응답자의 51.2%(21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 수도 48.8%(20명)을 나타내 박물관 방문 전 교사의 사전학습이 필수적이며 교육 활동 시 학생들에게 제주 역사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표15> 역사학습의 방법 설문 문항

3. 평소 역사를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N=47)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역사 관련 책	9	9	18(38.3%)
② TV 프로그램	2	8	10(21.3%)
③ 누리집	1	3	4(8.5%)
④ 기타	8	7	15(31.9%)

일상에서 역사를 접하는 방법에 대해 역사 관련 책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가 38.3%(1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참여 학생들의 소속 학교는 매주 수요일 1교시마다 사제동행의 독서시간을 갖는다. 또한, 등교 후 약 20분의 아침 독서시간을 갖고 학교 도서관의 소장 도서 중 역사 관련 교육 만화책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설문 결과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기타에는 부모님이 10명, 선생님이 3명, 무응답이 2명이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교육과정에 역사 교과가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생활보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라 보인다. TV 프로그램 경우 21.3%(10명)가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누리집이 8.5%(4명) 응답하였다.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참여 전 교육내용과 관련된 사전 인식에 대한 물음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쪽

<표16> 박물관교육프로그램 교육 전 문항1

4. '노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N=41)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나이가 많은 사람	17	7	24(58.5%)
②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1	5	6(14.6%)
③ 완성된 사람	0	4	4(9.8%)
④ 기타	2	5	7(17.1%)

‘노인’에 대한 사전 개념을 질문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로 58.5%(24명)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14.6%(6명)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답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노인의 개념인 ‘완성된 사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9.8%(4명)이었고 기타로 ‘부모님을 태어나게 해주신 분(2명)’, ‘선조와 고조(1명)’, ‘좋은 사람(1명)’, ‘나이가 많은 사람(1명)’, ‘무응답(2명)’이 있었다.

<표17> 박물관교육프로그램 교육 전 문항2

5.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노인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N=41)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예	2	5	7(17.1%)
② 아니오	18	16	34(82.9%)

‘노인성’의 사전 인지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들어본 적 있다고 17.1%(7명) 응답하였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82.9%(39명)였다. 사전 설문 결과를 통해 ‘노인성’이라는 별은 학생들에게 낯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저학년은 새로운 대상에 대해 학습할 경우 구체적인 조작물을 이용하거나 감각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앞서 설명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라 사전학습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시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표18> 박물관교육프로그램 교육 전 문항 3

6. '노인성'이라는 별은 제주의 하늘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에 대해 상상해본다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N=41)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건강과 장수(오래 사는 것)	2	4	6(14.6%)
②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	14	4	18(43.9%)
③ 오래된 별	3	9	12(29.3%)
④ 기타	1	4	5(12.2%)

「제주를 비추는 장수의 별, 노인성」 특별전과 관련하여 '노인성'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에 가장 높은 비율로 43.9%(18명)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응답하였다. '오래된 별'이라고 29.3%(12명)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하였고 '건강과 장수'는 14.6%(6명)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로는 '힘든 별' (1명), '제주도민이 오래 간직한 슬픔' (1명), '나이가 많은 사람의 별자리' (1명), '노인의 성' (1명)이 있었다.

<표19> 박물관교육프로그램 교육 전 문항 4

7. 다음의 그림은 '노인성'이라는 별을 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의 할아버지를 '장수'라는 뜻의 한자 수(壽)를 붙여서 <수노인도>라고 불렀습니다. <수노인도>의 할아버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N=41)

수노인도의 사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노인도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는 문항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신'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4%(18명)로 가장 많았고 '용'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10명), '요괴'라고 대답한 학생이 15%(6명)였다. 그 뒤를 이어 '할아버지'와 '머리가 크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각각 5%(2명)이며 '전설'과 '퇴마사'라고 응답한 학생은 3%(1명)이었다.

<표20> 역사교육방법의 선호도

8. '노인성' 별에 대해 어떠한 방법을 통해 배우고 싶나요? (복수 응답 가능) (N=52)			
	1학년	2학년	응답자수(%)
① 선생님의 설명	4	9	13(25.0%)
② 박물관에 찾아가기	10	9	19(36.5%)
③ <수노인도>를 통해 알아보기	5	4	9(17.3%)
④ 실제 별자리 관측	1	10	11(21.2%)

역사교육방법의 선호도를 물어보는 문항에 박물관 관람이 36.5%(19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교사의 설명이 25%(13명)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별자리 관측을 통한 학습은 21.2%(11명) 응답하였고 수노인도를 통한 학습은 17.3%(9명) 응답하였다.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박물관 관람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역사교육방법임을 알았다. 이를 통해 이번 박물관교육이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 2) 교육목표 및 내용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제주를 비추는 장수의 별, 노인성」 특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첫째,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특별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제주에서만 관측되는 별자리 노인성에 대한 교육 개설로 전시개최와 함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박물관에서 최근 사람들의 관심사인 건강한 삶(건강과 장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장수라는 교육 키워드를 통해서 세대 간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

다음은 학생들이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목표 및 내용이다.  
 (표21)

<표21> 국립제주박물관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계획안<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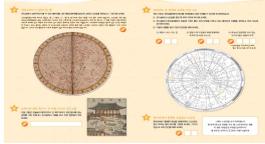
<b>프로그램명</b>	<b>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반짝반짝 장수카드 만들기”</b>
<b>교육대상(인원)</b>	초등학교 단체 40명 내외
<b>일정/횟수</b>	화요일 / 4회
<b>교육시간</b>	10:00~11:40(100분간)
<b>장소</b>	강당, 기획전시실
<b>교육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노인성 별자리와 관련된 문화재들을 감상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별자리와 관련된 우리 조상들의 역사와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우리나라 중에도 제주지역에서 잘 보이는 ‘노인성’ 별자리에 대한 전시 감상과 활동지를 통해 지역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성이란 무엇인가? 옛 사람들의 별자리(천문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옛 사람들의 생각 살펴보기</li> <li>- 장수를 상징하는 수노인도 등 노인성 관련 다양한 유물 감상과 이해하기</li> <li>- 부모님, 조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팝업 카드를 제작해보기</li> </ul>

## 2. 박물관교육 - 교육 운영

실제 학생들이 참여했던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세부계획(표22)을 참고하여 박물관에서 진행한 활동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과 녹취록을 활용하여 교수학습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51)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http://jeju.museum.go.kr/>) 참고

<표22> 국립제주박물관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세부계획<sup>52)</sup>

교육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교수 방법
<b>도입(15분)</b> /10:00~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 확인</li> <li>○ 전체 교육 일정 안내</li> <li>○ 노인성이란 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li> <li>○ 조선 시대의 별자리 이야기</li> </ul>	전자 교탁, 마이크	강의
<b>전개1(30분)</b> /10:15~1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과 이해]</li> <li>노인성 활동지와 함께하는 특별전 감상과 문화재 이해하기</li> <li>-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별,</li> <li>- 장수의 별</li> <li>- 노인성이 비추는 땅, 제주</li> </ul>	 활동지, 볼펜	감상
<b>전개2(45분)</b> /10:45~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li> <li>- 김홍도, 김득신, 조석진</li> <li>○ 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수노인도 이해하기(오지연도 등)</li> <li>○ 부모님, 조부모님께 보내는 반짝반짝 장수카드 만들기</li> <li>- 내가 그려보는 장수를 기원하는 수노인</li> </ul>	 도안, 색연필, 테이프, 가위, 커팅매트, 칼, 카드종이, 카드 봉투	체험
<b>정리(10분)</b> /11:30~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li> <li>- 학습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기</li> <li>- 설문 조사</li> </ul>	설문지, 볼펜	-

## 1) 참여 학습의 시작 - 도입

교육담당자인 학예사가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였다. 세부 교육 일정 안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 및 노인성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학예사가 학생들에게 노인성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았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52) 위 홈페이지 참고

학예사 : (화면에 노인성 사진) 이 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학생 : 노인성입니다.

학예사 : 우리 친구들은 사전학습이 잘 되어 있어 잘 알고 있네요.

학예사 : 무병장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학생 : 몰라요.

학예사 : 오래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엄마, 아빠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 : (학생들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를 이야기하였다.)

학예사 : (지도를 보여주면서) 지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죠?

밤하늘을 옛날 사람들은 수많은 지도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에 제주에서만 관측되는 별이 있습니다.

노인성의 설명이 마무리된 후 수노인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학예사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만화 캐릭터를 비유하여 밤하늘에 있는 별을 캐릭터처럼 만든 것을 수노인이라 설명하였다. 설명 이후 학생들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수노인에 대해 이해를 한 듯 보였다. 다음으로 학예사는 조선 시대 화가 김홍도를 언급하였다. 학생들에게 먼저 김홍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학예사의 질문에 4, 5명의 학생들이 들어본 적 있다고 대답하였다. 김홍도 또한 노인성을 캐릭터화한 그림인 수노인도를 그렸다고 이야기하며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수노인도를 그렸음을 설명했다. 그중 김명국의 수노인도를 화면의 이미지로 제시해 학생들과 감상하며 학예사는 아이들에게 생김새나 머리 모양 그리고 수염, 노인이 들고 있는 것 등을 물어보았다.

본격적인 전시실 감상 전 학예사의 전시실 안내가 이루어졌고 이때 학생들에게 활동지가 부여되었다. 학예사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이 활동지가 고학년 위주로 제작된 것이라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활동지 안에 있는 모든 퀴즈를 풀지 않아도 되며 노인성을 나타낸 지도와 수노인도를 실제 감상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활동지 배부 전 박물관

관교육에 함께 참여한 1학년 교사는 1학년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활동지의 표현된 용어나 내용의 양, 특별전 관련 퀴즈 등이 1학년 수준보다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학예사에게 전시실 이동 전 활동지 없이 전시실 감상이 가능한지 물었고 활동지를 통한 전시실 감상은 1학년을 제외한 2학년에게만 적용되었다. 활동지의 내용은 특별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그에 대한 퀴즈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고학년 위주의 활동지라 2학년 학생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활동지였다면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전시실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 2) 참여 학습의 전개

### (1) 특별전 관람

세미나실에서 특별전 전시실로 이동하였다. 본인은 2학년 학생들과 학예사의 안내에 따라 전시실 관람을 동행하였다. 지도에 표시된 노인성을 찾아본 후 학생들과 함께 특별전 교육담당자가 한라산에서 실제 촬영한 노인성 영상을 감상하였다. 노인성 촬영 영상과 관련된 학예사의 설명과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2학년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학예사 : 한라산에 가면 노인성이 잘 보이는데 전시를 기획한 선생님이 한라산을 직접 올라가서 노인성을 찍은 거예요. 노인성을 찾아보세요.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 학생 : 장수가 뭐예요?
- 학예사 : 오래도록 사는 것을 의미해요.
- 학생 : (학생들은 보여주는 영상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학예사 : 움직이는 무엇이 보이지 않나요?
- 학생 : 콩알 같은 것이 움직여요.
- 학예사 : 노인성을 보니 느낌이 어떤가요?

학생 : (영상에서 보이는 노인성을 보면서)  
 우와 진짜 커요.  
 신기해요.  
 멋져요.  
 또 보고 싶어요.

2학년 학생들은 보여주는 영상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짧은 감상시간을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노인성 촬영 영상은 학생들이 상상만 하던 무형의 이미지를 실체를 통해 확인하게 되어 학생들의 특별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 (2) 수노인도 감상

노인성 영상 감상 후 바로 수노인도 감상이 이어졌다. 수노인도에 대한 학예사의 질문과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학예사 : 할아버지는 무엇을 타고 내려왔나요?

학생 : (수노인도를 보며)  
 빗자루요.  
 구름이요.  
 마녀 빗자루요.

학예사 : 학을 타고 내려왔어요.

학예사 : (김홍도의 수노인도) 이 작품은 김홍도의 작품이에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학생 :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학생 : 선생님, 그림의 검은색은 무엇인가요?

학예사 :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나이를 먹게 되죠. 아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가 손상된 것입니다. 습도나 병충해 등으로요.

학생 : 할아버지 얼굴에 안경을 쓴 줄 알았어요.

학예사 :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건 복숭아입니다. 이 복숭아는 3천년에 한 번씩 여는 데 이 복숭아를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해요. 복숭아를 천도라고 하는데 장수랑 연관되어 있어 수노인도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들거나 복숭아를 들거나 하고 있

어요.

학예사는 교육대상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물음에 대해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학예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학예사의 설명으로 수노인도에 대한 감상을 마무리하였다.

예상보다 박물관에 늦게 도착하게 되어 박물관교육이 지연된 상황이었다. 인상 깊었던 점은 활동 진행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한 학생이 수노인도의 훼손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을 때 학예사가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설명해주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학예사의 설명은 의문을 가졌던 학생 외의 다른 학생들도 수노인도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수노인도 감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3) 팝업 장수카드 만들기

학생들은 특별전 전시실에서 세미나실로 이동하였고 이번 활동은 학예사가 아닌 외부전문 교육 강사의 지도하에 활동이 이루어졌다. 수노인도를 활용하여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는 팝업 장수카드를 만드는 활동이었다. 한 모듈 당 6, 7명의 학생들이 구성되어 모듈별 활동을 통해 장수카드를 만들었다. 세미나실 앞쪽에서 외부전문 교육 강사가 설명 및 시범을 보여주었고 이를 학생들이 따라 하는 활동이었다. 평소 미술 활동을 할 때 기본적인 자르기와 붙이기를 구사하는 정도의 1, 2학년 학생들이 실습하기에는 카드 만들기 활동이 까다로운 편이었고 이에 국립제주박물관 교육담당자와 인솔교사가 각 모듈을 맡아 보조역할을 하였다. 카드 만들기 활동이 어려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주어진 시간 내 나머지 짧은 시간이 카드 내용 작성 시간으로 주어졌다. 카드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노인성과 수노인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본 박물관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 유의미한 활동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활동의 어려움으로 학생들이 카드의 내용을 충분



### 3. 박물관교육 후 - 설문지 분석

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참관 학생인 1학년(20명) 학생과 2학년(21명) 학생, 총 41명 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방문경험 및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박물관교육프로그램에 관하여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① 박물관 방문경험 및 목적

설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박물관 방문경험 유무와 목적을 분석하고 설문 결과에 따른 원인을 파악할 것이다. 박물관교육의 활성화는 학생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사후 설문 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박물관 방문경험이 부족하다면 박물관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찾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 ② 박물관교육프로그램(본 학습)의 효용성 및 흥미도

제주 역사를 이해하는데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효용성 및 본 학습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었던 활동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의의 및 추후 박물관프로그램 내 활동 수립 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고자 한다.

#### ③ 운영 개선사항 및 추후 박물관교육 내 선호 교육방법

본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찾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방법을 파악해 추후 박물관프로그램 활동 계획 시 참고할 것이다.

다음은 2019년 5월 17일에 실시된 특별전 관련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설문지 5개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과 그에 따른 분석이다.

<표23> 국립제주박물관 방문경험 및 목적 설문 문항

1. 이전에 국립제주박물관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나요? (N=41)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예	1	3	4(9.8%)
방문 횟수 □ 1회 □ 3회 □ 5회 이상)	1회(1)	1회(3)	4
② 아니오	19	18	37(90.2%)
1-1.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N=4)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특별전 전시를 보기 위해서	1	1	2(50.0%)
② 박물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0	0	0(0.0%)
③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0	3	2(50.0%)

국립제주박물관의 방문경험 및 목적을 묻는 문항에 90.2%(37명)가 이전에 박물관 방문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모두 이전 방문횟수는 1회이며 4명 중 2명은 특별전 전시 감상을 위해, 2명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으로 다녀왔다고 응답하였다.

방문경험이 전무한 학생을 비롯하여 방문 목적에 있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방문한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자발적 방문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문 결과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과 박물관 사이의 지리적 접근성이다.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은 서귀포시 도순남로, 대청로 소재이며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시 일주동로에 위치한다. 두 곳 사이의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사전에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할 시에도 학교와 박물관 사이의 거리가 꽤 되어 장거리 버스 탑승으로 인한 멀미,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제 교육 활동시간의 확보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박물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 없다면 학생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가기란 쉽지 않다. 둘째, 국립제주박물관 내 다양한 연령의 교육대상을 수용할 수 있는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부재이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은 존재하나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셋째, 홍보 부족에 따른 박물관의 낮은

인지도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부모님과 동행하여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학교 교육과정 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담임교사와 박물관교육에 참여한다. 지난 3월 본인은 「제주를 비추는 장수의 별, 노인성」 특별전 사전교사연수에 참여하였다. 그곳에서 학예사와 연구사를 통해 홍보의 어려움을 전해 들었다. 국립제주박물관 교육담당자는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참여율이 저조해 교육 진행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였다. 박물관에서는 공문발송을 통해 학교로 홍보자료를 배포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사 스스로가 박물관교육에 관심이 없다면 주요 업무와 관련된 많은 공문 속에서 해당 홍보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기란 어렵다. 사전교사연수에 참여한 한 중등교사는 학교로 공문이 발송되어도 관련 교과인 역사나 사회과 교사에게만 공문 배정을 해 타 교과 교사들은 해당 공문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박물관교육의 흥미 여부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유무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워 홍보의 방법적 측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24> 역사이해와 관련된 효용성 설문 문항

2. 이번 박물관교육이 '제주의 역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N=41)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그렇다.	8	12	20(48.8%)
② 보통이다.	12	8	20(48.8%)
③ 그렇지 않다.	0	1	1(2.4%)

제주 역사이해와 관련된 효용성 설문 문항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한 학생이 48.8%(20명),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48.8%(20명)다.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응답한 학생과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를 종합하면 41명 중 40명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이므로 이번 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이 제주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된다.

<표25> 교육방법에 대한 흥미도 설문 문항

3. 이번 프로그램 중 가장 재미있게 참여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N=41)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학예사 선생님의 설명	3	2	5(12.2%)
② 수노인도 감상	5	7	12(29.3%)
③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는 장수 팝업 카드 만들기	12	12	24(58.5%)
④ 기타	0	0	0(0.0%)

박물관교육방법의 흥미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는 팝업 장수카드 만들기 활동이 58.5%(24명)로 학생들이 가장 흥미있게 참여한 활동이었으며 수노인도 감상이 29.3%(12명)로 그 뒤를 이었고 학예사의 설명이 12.2%(5명)이었다.

앞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습에 있어 감각 의존적이며 구체적 조작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며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는 실물을 직접 접촉하고 학습자 스스로 행동으로 표현할 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이 흥미 있게 참여했던 팝업 장수카드 만들기과 수노인도 감상을 살펴보면 동적이며 학생들의 시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저학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활동 구성 및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학생들의 흥미를 살린 체험활동 구안에 힘쓰되 활동 그 자체의 즐거움에 그치는 것을 경계하고 실제 박물관교육의 목적에 맞는 유의미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표26> 교육 운영의 개선할 점 설문 문항

4. 이번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N=41)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 수(%)
① 내용이 어렵다.	12	9	21(51.2%)
② 재미없는 활동	2	0	2(4.9%)
③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짧다.	6	12	18(43.9%)
④ 기타	0	0	0(0.0%)

박물관교육 운영의 개선할 점에 대한 설문 문항에는 ‘어려운 내용’ 이라고 답한 학생이 51.2%(21명)였고 그 뒤를 이어 ‘충분치 못한 감상시간’ 이 43.9% (18명)였다.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참여 희망날 짜와 교육대상을 적어 사전 신청을 하였고 신청 이후에는 유선 전화로 학예사와 구체적 일정과 활동을 조정하였다. 이에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나 실제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임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교육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사전 설문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박물관교육 전 학교에서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박물관교육에 참여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대상 인지 및 교사의 사전학습이 이루어졌음에도 교육내용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생소한 주제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유명사가 많아 이와 같은 설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표27> 교육 운영에 따른 의견 및 추후 선호 교육방법 설문 문항

5. 다음 박물관교육에서 경험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N=41)			
	1학년(명)	2학년(명)	응답자수(%)
① 만들기 체험	7	10	17(41.5%)
② 게임 활동	10	8	18(43.9%)
③ 동영상 및 시각적 활동 매체	3	3	6(14.6%)
④ 기타	0	0	0(0.0%)

박물관교육 운영에 따른 의견 및 추후 선호 교육방법을 묻는 설문 문항에 게임 활동이 43.9%(18명)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만들기 체험이 41.5%(17명)로 그 뒤를 이었다. 동영상 및 시각적 활동 매체를 활용한 방법은 14.6%(6명)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박물관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박물관교육의 정의와 의의를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정리하고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기획한 어린이박물관 교육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실시되는 어린이박물관 교육의 내용 분석을 위해 비교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대상 박물관교육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더불어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교육 전후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박물관 교육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박물관 교육은 비교 대상인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상설전시보다 특별전에 의한 교육이 많았다. 그로 인해 분기별 교육프로그램의 수가 유동적이고 전시 일정이 제한적이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초(3월)에 일 년 단위의 교육과정과 학년 교육과정에 따른 체험학습 장소와 일정을 사전에 계획한다. 짧은 전시 일정과 매회 다른 전시 의도의 특별전과 연계된 박물관교육의 경우 학년 교육과정을 통해 사전에 계획되기가 어려워 박물관교육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둘째,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대상은 세분화되어 있으나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교육대상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학교 급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의 학습능력의 차이는 크다. 어린이박물관 교육 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년별 인지발달에 따라 학습방법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보다 교육대상이 세분화된다면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박물관교육이 될 수 있다.

셋째, 어린이박물관 교육 진행 시 저학년 수준에 맞는 용어선택과 활동 구성이 요구된다. 실제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전개 부분에서 학예사의 설명 중 저학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학생들의 전시실 감상을 도와주는

활동지의 경우 좋은 학습 자료임에도 그 수준이 높아 이를 활용할 수 없어 아쉬웠다. 학생들이 박물관교육을 ‘관찰자로서의 나’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용어선택과 학습 자료 제작에 있어 교육대상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활동의 구성은 다음의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박물관교육 내 모든 활동은 초등학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할 정보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전제하에 활동은 추상적인 사고에 익숙하지 못한 저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그리기, 편지쓰기 등 활동 중심의 학습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박물관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유의미한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첫째, 학교연계 박물관교육은 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보다 교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박물관 방문 전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특히 저학년은 역사 관련 배경 지식이 부족하므로 교사 주도의 철저한 사전학습 후 실물자료와 함께 박물관 체험을 한다면 저학년 학생들도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교사는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의 지식습득 그 자체로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박물관은 ‘가르쳐야 하는 곳이 아니라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53)</sup>

제주 문화유산의 장, 교육 활동의 무대인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주의 아이들은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제주의 할망, 하르방의 지혜를 배운다. 박물관에서 아이들은 제주의 삶을 먼저 경험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일궈낸 제주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이처럼 제주의 아이들에게 박물관은 교육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국립제주박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

53) 권의신, 2005,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에 관하여: 초등학교 대상의 구성주의 박물관을 위한 시론」, 『초등교육연구』 18, 449쪽

기 때문에 제주의 어린이박물관 교육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의 아이들이 앞으로 박물관에서 ‘제주의 삶을 경험한 할망, 하르방의 지혜와 체험의 기쁨’ 그리고 ‘실물을 보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립중앙박물관, 2019, 『국립중앙박물관교육프로그램 자료집』  
김인회, 2008, 『도시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경인문화사  
백령, 2005,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교육』, 서울:예경  
이보아, 2002, 『박물관학개론』, 김영사

### 2. 연구논문

- 강선주, 2008, 「역사교육의 목적과 초등학교 교사의 역사교육관」, 『역사교육』 108  
권의신, 2005,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에 관하여: 초등학생 대상의 구성주의 박물관을 위한 시론」, 『초등교육연구』 18  
김경수, 2015, 「인물학습을 활용한 역사학습 방안 탐색」, 서울교육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정, 2012,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역사학습」, 『역사교육연구』  
김봉석, 2015, 「융복합 시대의 지리적 관점을 조망하는 역사교육의 모색」, 『사회과교육』 54  
김상욱, 2009, 「박물관을 활용한 중등 역사교육 방안 연구 :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원길, 김주연, 2018, 「박물관 기획전시 관람객의 관람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51  
문외술, 2013,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 근

- 현대사 아카데미 시범운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언진, 2015, 「주제 중심 통합학습을 활용한 저학년 역사교육의 가능성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성, 2012, 「문화유적 관련 박물관교육프로그램 분석 연구 : 실학박물관 ‘어린이 실학교실’ 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령, 2002, 「박물관교육의 이론과 유형 사례」, 『박물관학보』
- 봉다현, 2015, 「박물관 및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비교연구 -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원주, 2007, 「동서양 박물관 명칭의 어원과 그 교육적 함의」, 『박물관 교육연구』
- 석병배, 2012, 「초등학교에서 지역사 자료로 역사하기: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정, 2010, 「문화재를 활용한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연구 - 서울역사박물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 염윤영, 2012,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학부모 만족도 설문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인택, 2003, 「역사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박물관 학습 방안 - 초등학생의 북천박물관 견학을 중심으로 -」, 『지역과 역사』 13
- 유승광, 2006,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구성 방안」, 『역사와 담론』 44
- 윤세철, 최상훈, 2003, 「역사의 유용성과 역사교육목표」, 『역사교육연구회』 87
- 임성국, 2008, 「박물관교육프로그램과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선, 2004, 「초등학교 4,5,6학년을 위한 박물관에서의 학과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종호, 2006, 「어린이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박물관학보』
- 황지영, 2005, 「박물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현정, 2015, 「지역사 수업의 실행과 정체성 교육」,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 허영훈,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한 초등학교 지역사 학습 교재 개발 연구」, 『사회과교육』 56

### 3. 홈페이지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http://jeju.museum.go.kr/>)

[부록] 국립제주박물관을 만나기 전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사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어린이박물관의 교육내용 분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에 제시된 질문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4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과정 오혜진

각 질문을 차례로 천천히 읽어가면서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번호에 V표 하세요.

<p>1. 여러분은 평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나요?</p> <p>① 역사를 좋아하고 잘 알고 있다. ② 역사를 좋아하나 잘 알지 못한다. ③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다.</p> <p>2. 여러분은 제주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p> <p>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알지 못한다.</p> <p>3. 평소 역사를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p> <p>① 역사 관련 책 ② TV 프로그램 ③ 누리집 ④ 기타( )</p> <p>4. '노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p> <p>① 나이가 많은 사람 ②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사람 ③ 완성된 사람 ④ 기타( )</p>	<p>5.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노인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p> <p>① 예 ② 아니오</p> <p>6. '노인성'이라는 별은 제주의 하늘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에 대해 상상해본다면 무엇이 떠오르나요?</p> <p>① 건강과 장수(오래 사는 것) ②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 ③ 오래된 별 ④ 기타( )</p> <p>7. 다음의 그림은 '노인성'이라는 별을 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의 할아버지를 '장수'라는 뜻의 한자 '수(壽)를 붙여서 &lt;수노인도&gt;라고 불렀습니다. &lt;수노인도&gt;의 할아버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적어보세요.</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8. '노인성' 별에 대해 어떠한 방법을 통해 배우고 싶나요? (복수 응답 가능)</p> <p>① 선생님의 설명 ② 박물관에 찾아가기 ③ &lt;수노인도&gt;를 통해 알아가기 ④ 실제 별자리 관측</p>
--	---

[부록] 국립제주박물관을 만나고 난 후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수노인도」 사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어린이박물관의 교육내용 분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에 제시된 질문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5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과정 오혜진

각 질문을 차례로 천천히 읽어가면서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번호에 V표 하세요.

<p>1. 이전에 국립제주박물관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나요?</p> <p>① 예(방문 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5회 이상)(1-1번으로 응답) ② 아니오</p> <p>1-1.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p> <p>① 특별전 전시를 보기 위해서 ② 박물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③ 학교의 현장체험학습</p> <p>2. 이번 박물관교육이 '제주의 역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p> <p>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지 않다.</p>	<p>3. 이번 프로그램 중 가장 재미있게 참여한 부분은 무엇인가요?</p> <p>① 학예사 선생님의 설명 ② 수노인도 감상 ③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는 장수 팝업 카드 만들기 ④ 기타</p> <p>4. 이번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p> <p>① 내용이 어렵다. ② 재미없는 활동 ③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짧다. ④ 기타</p> <p>5. 다음 박물관교육에서 경험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p> <p>① 만들기 체험 ② 게임 활동 ③ 동영상 및 시각적 활동 매체 ④ 기타</p>
---	--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Educational Contents of Children's Museum

- Jeju National Museum -

Oh, Hye Jin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education of the children's museum in Jeju through the educational case of the Jeju National Museum, which was conducte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suggest ways to promote the education of the children's museum in Jeju under the limited conditions of the absence of museums in various fields.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s museum education at the Jeju National Museum and the measures for activating it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museum education conducted at the Jeju National Museum has many special exhibitions compared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making the number of quarterly education programs flexible and the exhibition schedule limited. Second, the Jeju National Museum needs

to plan the educational target specifically considering the age of students. Third, it is required to select terms and organize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lower grade level in the education program.

In addition, the role required by teachers as well as the program configuration is important to elicit meaningful experience from students.

First, since school-linked museum education is made by teachers rather than by students themselves choosing a program, teachers should inform students of their learning in advance and clearly before visiting the museum. Second, teachers should be wary of placing the purpose of education in their students' knowledge acquisition itself. The museum should remember that it is not a place to teach but a place to feel.

At the Jeju National Museum, the venue of Jeju's cultural heritage and educational activities, children in Jeju learn the wisdom of Jeju's Halmang and Harbang, just like the name of the museum's education program. As such, the museum is more valuable than education to children in Jeju. Si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Jeju National Museum, there are limitations to generalizing it into Jeju Children's Museum education. But based on the study, it should continue to be studied so that children in Jeju can get 'the wisdom of Halmang and Harbang who experienced Jeju's Life and the joy of experience' and 'the pleasure of seeing things' in the museum in the future.